시나리오

**S#1.** 초등학교 정문. 낮.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초등학교 정문 앞.

자신의 아이(지훈)를 기다리고 있는 주부1. 몇 시쯤 나오냐고 카톡을 보낸다.

40분 정도 걸린다는 카톡을 받는 주부1.

벤치에서 기다리겠다고 답장하는 주부1.

주부1이 벤치로 가는데 주부2,3가 먼저 와서 대화를 하고 있다.

**주부2**: 어? 지훈엄마. (예상치 못한 말투)

**주부1** : 어?

**S#2.** 차가 지나가고 마주보고 앉아 있는 주부1과 주부2,3.

 세 명은 맥주병을 깐다.

 대화를 시작하는 주부2.

**주부2** : 지훈 엄마, 요즘 한동안 잘 안보이더니 요즘 어떻게 지냈어? (반가움)

**주부1**(지훈 엄마) : 요즘 첫째 학원 알아보고 둘째 유치원 보내랴 집에서 빨래하랴 밥하랴 청소하랴 설거지하랴 바쁘지. 게다가 요즘 또 초등학생들 노리는 유괴범들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첫째 마중 나와야 하는 일까지 늘어났지 뭐야. 어디 마중 나오지 않고서 불안해서 살겠어?

**주부3** : 맞아 맞아. 요즘 뉴스에서도 유괴범들 얘기만 나오는 거 보면 괜히 불안해서 마중나오지 않으려다가도 마중 나오게 된다니까. 아 그나저나 지훈 엄마, 지훈이가 공부를 반에서 1등 한다면서? 지훈이 공부 어떻게 시켜??

**주부1** : 응? 우리 애는 내가 공부하라는 소리 안해도 지가 알아서 공부하던데? 지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니깐 너무 신통하지 뭐야. 호호호

**주부3** : 와 진짜 부럽다. 우리애도 지훈이의 반만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애는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니깐? 우리 애는 맨날 커서 축구선수 되겠다고 축구에만 빠져서 살아. 아휴 운동이 얼마나 힘든 줄도 모르고 제발 공부나 좀 했으면 좋겠건만…….

 **주부2** : 맞아 맞아. 우리애는 맨날 그 ‘오버워치’ 였나? 그 게임에 빠져서 아주 그냥 빠져 나올 생각 자체를 안 해. 지훈이는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 지훈 엄마 진짜 복받은거야. 아 그나저나 지훈 엄마. 요즘 남편은 어떻게 지내? 남편 얘기 좀 해줘 봐봐.

**주부3** : 맞아. 맞아. 잘나가는 치과의사 삶이 궁금하다 야.

**주부1** : 응? 요즘 우리 남편 여기 옆에 있는 상가에서 일해. 요즘은 우리 남편 병원에 환자들이 늘어나가지고 되게 바빠. 나도 요즘 얼굴도 잘 못 보는걸?

**주부2** : 남편이 월급은 어느 정도 돼?

**주부1** : (살짝 당황) 어? 어. 그야 때에 따라 다르지. 호호호.

**주부2** : 아니 대략 어느 정도 되냐구.

**주부1** : (곰곰이 고민 하다가 말한다. 어색한 기운을 숨길 수 없다.) 한 1000~1500정도?

**주부3** : 와 진짜 부럽다. 우리 남편은 진짜 쥐꼬리만한 월급가지고 자기가 많이 버는 줄 안다니깐. 자식은 공부 잘하지 남편은 돈도 잘 벌지. 다 가졌네 지훈 엄마. 호호호.

**주부1** : 호호호

셋은 다시 한번 맥주를 마신다. (풀샷)

**주부3** : 지훈 엄마, 나 요즘 임플란트 해야 하는 곳이 생겼는데 남편 병원 가서 하면 좀 싸게 해주나? 여기 상가면 집이랑 가깝고 좋은데.

**주부2** : 그래 잘됐네. 우리 애도 지금 충치 떼 울 곳 많은데 자기 남편 병원에 가서 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집도 가깝고 좋네.

**주부1** : (당황,말 더듬음.) 어? 어 어 안돼. 호호

**주부3** : (실망) 아니 왜?

**주부1** : (침착하게) 우리 남편 곧 병원 옮겨. 알다시피 이 동네가 곧 재건축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경기도 쪽에 있는 상가로 병원 옮기기로 했어. 호호

**주부2** : 경기도 어디?

**주부1** : (망설임 없이) 경기도 남양주 쪽.

**주부2** : (기쁨) 그래? 어머 어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거기 우리 부모님 사시는 곳인데. 나 거기 되게 자주 가. 부모님 뵈러 가면 우리 애 데리고 남편 병원 갈테니 좀 싸게 좀 해주라. 호호. 남편 병원 옮길 주소 좀 알려줘.

**주부1** : 그게… 아직 장소가 확정 된 건 아니여서…. 호호호

**주부2** : 그럼 확정 되면 알려줘. 호호

**주부1** : 알겠어. 호호 (어색한 웃음)

주부1이 캔맥주를 꿀꺽꿀꺽 마신다.

갑자기 동공이 확장되는 주부1.

그때 남편이 주부2,3 너머로 나타난다.

누추한 복장의 남편.

이쪽으로 다가오는 남편.

**주부3** : 지훈 엄마, 지훈이는 학원 어디 다니는 지 좀 알려줘. 우리애도 이제 공부 좀 슬슬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주부1은 아직도 남편에게 시선이 고정 되어 있다.

점점 다가오는 남편.

**주부3** : 지훈 엄마?

**주부1** : 응?

다시 눈이 남편 쪽으로 향한다. (소리 :지훈이 학원 어디 다니는 지 좀 알려줘)

점점 가까워지는 남편.

자신과 눈이 마주치는 남편.

남편이 손을 들며 아는 척을 하려고 한다.(남편 : 자기ㅇ……………)

**주부1** : (다급하고 당황한) 어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가 올게..

주부1, 허겁지겁 자리를 뜬다. (풀 샷)

**S#3**

화장실에서 어푸어푸 세수를 하는 주부1.

난감하고 복잡한 표정의 주부1.

**S#4** (학교 앞)

지훈엄마가 다시 나타난다.

**주부3** : 아휴 지훈 엄마 갑자기 말도 없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갔다가 와?

**주부1** : (웃으며) 미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호호호.

**주부2** : 지훈엄마 이제 곧 있으면 지훈이 올텐데 지훈이 공부 어떻게 시키는지 얘기 좀만 더 들려줘. 우리 애 공부시킬 때 참고 좀 하게.

**주부1** : (기분 좋은 웃음) 수학은 여기 상가에 있는 수학학원 보냈더니 항상 95점 이상 나오더라구. 영어는 저기 방이동 쪽에 있는 영어 학원 버스 타면서 다니는데 애가 되게 재미있어해. 그래서 영어도 항상 90점 이상은 나와. 그리고 국어는…

그때 아들 지훈이가 나온다.

**지훈** : 엄마. (힘차게. 뛰어온다)

**주부1** : 어. 지훈아. 빨리와. 엄마 되게 오래 기다렸다.

 주부2와 주부3를 바라보며

 (기분 좋은 웃음) 저 이만 들어가 볼게요..

**주부2,3** : 네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만나면 남편 얘기 좀 더 들려 주고.

주부1과 지훈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지훈이가 주머니 속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꺼낸다.

**지훈** : 엄마 이거 선생님이 엄마 싸인 받아오래.

**주부1** : 이게 뭔데? (지훈이가 준 종이를 펼쳐본다. 놀라고 당황한 표정.)

20점 짜리 비 내리는 수학 시험지를 본다.

주부2,3를 고개 너머로 슬쩍 의식하는 주부1.

주부2,3는 시험지를 보지 못한 듯 서로 대화를 주고 받고 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주부1.

빠르게 시험지를 접어서 자신의 주머니 속에 집어 넣는 주부1.

**주부1** : (살짝 다급) 빨리 가자 지훈아.

주부1과 지훈, 손을 잡고 자리를 뜬다.

**S#5(집으로의 귀갓길)**

말 없이 걷고 있는 주부1과 지훈.

지훈이는 과자를 먹으면서 가고 있다.

집에 가는 도중에 길가 맞은편에서 남편이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주부1.

**주부1** : (차분한 어조) 지훈아 너 혹시 그 동안 엄마한테 창피해서 거짓말 한 거 있니?

**지훈** : (천진난만, 과자 먹으며)아니? 거짓말 한 거 없는데 갑자기 왜?

**주부1** : 아니 그냥. 지훈아 넌 나중에 커서도 거짓말 하지 말고 살어. 알았지?

**지훈** : 응.

잔잔한 음악과 함께 뒷모습 풀샷. (F.O)